

“21 세기 미국 선교를 통한 세계 선교”

“The 21st Century World Mission through the Mission to America”

2008 KWMC, Wheaton, IL

고인호 목사

July 29, 2008

서론:

1988 년도 첫 KWMC 를 Wheaton 에서 개최할 때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님들은 불과 수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0 년이 지난 오늘 한국은 2 만에 가까운 (18,000) 선교사를 세계에 내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미 세계선교 제 2 위라고 한지도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2006 년 3 월호 “Christianity Today” 잡지 Cover Story 에 한국이 멀지 않아 세계 선교 제 1 위 가 되리라고 대서 특필한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동방에 작은 나라 한국이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을 능가하여 선교 제 1 위가 될 수 있을까요? 선교 제 1 위가 되든지 선교 제 2 위가 되든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을 기우려야 할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국백성을 통하여 어떤 선교 전략을 세우고 계신가? 하는 것이 더욱 우리의 관심을 기우려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불과 120 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6 년 간의 일본의 압제와, 2 차 대전 후 나라가 분단되는 아픔과 혼란, 공산주의의 박해로 무려 200 만의 생명을 희생한 3 년간의 남북 전쟁을 통해서 민족과 교회를 단련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고난은 예수님 재림 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21 세기 세계선교를 위하여 쓰시려고 단련 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 한국은 폐허 되고,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손꼽혔으며 국민 소득 년당 \$100 도 되지 못하는 어려운 한국을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국가로 일우 키셨습니다.

하나님은 21 세기 선교를 한국 사람을 통하여 할 전략으로 20 세기 말부터 한국 백성을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으로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한국 백성을 200 만이나 미국에 보내시고 짧은 3-40 년 동안에 무려 4000 교회를 세우게 하여 미국 이민사에 인두당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운 민족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크게 세우고 한국사람들끼리 모여 한국말로 예배 드리고 한국 사람들끼리 친교하고 타향에서 향수를 즐기게 하려고 한국 교회를 세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원대한 꿈 곧 세계선교 전략을 가지고 미국 땅에 수 많은 한국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국 백성을 미국으로 보내기 시작 할 때부터 세계선교의 전략과 꿈을 가지고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 하면 21 세기 예수님 재림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세계선교의 전략은 바로 미국을 통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세계선교사 파송 하는데 숫자적으로 제 1 위가

되느냐? 제 2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이루어져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미국을 통하여 21세기 세계선교 전략을 세우기를 원할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를 찾아 보아야 합니다.

I.

미국은 21세기 로마와 같은 나라입니다. 역사를 볼 때 1세기 하나님의 세계선교 전략은 로마를 통하여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에 로마를 예비하셨고 로마가 먼저 복음을 받아드리게 함으로 세계선교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1세기 신앙의 거두인 바울과 베드로를 로마로 보내어 거기서 순교케 하면서라도 로마를 복음화 했습니다. 1세기에 세계 최강국인 로마가 복음화 되면 당시 로마 영향권에 있는 방대한 문명한 세계는 다 쉽게 복음화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 후 313년 로마의 Constantine 황제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자 로마의 도로를 타고 그 영향권에 있는 당시 구라파 와 북 아프리카 세계가 다 복음화 된 것입니다. “모든 도로는 다 로마로 통한다.” 고 사학가들은 말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로마의 도로를 타고 복음이 세계로 전해졌습니다. 21세기 미국이 바로 1세기 로마와 같은 나라입니다. 모든 도로는 다 미국을 통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미국은 세계의 역사상에 가장 강대한 나라입니다. 실제로 21세기의 모든 도로는 다 미국을 통합니다. 세계의 모든 항공로 선이 미국을 통합니다. 뉴욕 Kennedy 공항에 가서 보면 세계 모든 나라 항공회사가 거이다 들어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미국이 세계 중심을 장악했다는 증거 입니다. 오늘날 21세기 미국은 세계 정치, 군사, 경제, 과학, 산업 과 상업, 학문, 문화, 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UN 본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국제 기구의 본부 대부분이 다 미국에 있습니다. 세계 모든 항공로 선이 다 미국으로 들어 오는 것뿐 아니라 상품을 실은 상선들이 다 미국을 향하여 오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Globalization(지구촌화) 시대라 합니다. 그런데 경제 학계에서는 Americanization(미국화) 이 곧 Globalization 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2차 대전 후 폐허 된 세계를 먹여 살린 나라 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미국의 원조를 받지 않고 일어난 나라가 거이 없습니다. 미국이 전쟁 후 Marshall Plan 을 세워 폐허 된 구라파를 돕고 패전국가인 독일과 일본을 도와 경제 제 2위 와 제 3의 강대 국으로 세웠습니다. 한국도 오늘날 이만큼 경제 국가가 된 것이 다 미국의 막대한 도움으로 된 것입니다. 지금 중국도 미국과 교역하여 경제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인 것을 세계가 인정합니다. 미국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와서 살기 원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을 미워하는 모슬렘 들도 실제로는 미국에 와서 살기는 다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미국에는 180개의 언어 민족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1세기 로마가 그러했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다민족 사회를 이룬 나라였습니다. 21세기 미국은 세계역사상에 가장 다민족화 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을 복음화 하는 것은 곧 세계 민족을 복음화 한다는 말입니다. 미국에 사는 180개 언어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자기 본국에 왕래하며 친척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계선교가 미국을 통하여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가 전도되자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미국에 수 많은 대학에는 세계 각처에서 온 외국 학생들이 무려 100 여 만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세계선교 할 수 있는 유일한 “선교지” 입니다. 미국 대학에 가면 우리가 찾아 가기도 어려운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 가면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 됩니다. 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선교 전략 입니다. 돈을 수십 만불 들여서 세계 많은 나라의 시골이나 도시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여기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 하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수백 배, 수천 배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유학생이 예수 믿고 자기 나라에 가서 선교의 문을 굳게 닫힌 국법을 고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World Trade Center 의 Twin Tower 가 모슬렘 Terrorists 의 손에 무너지자 세계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20 세기의 세계문제는 공산주의와 끊임 없는 냉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드디어 Berlin Wall 과 함께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21 세기의 세계전쟁은 기독교와 이슬람과의 문화 전쟁이라고 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과연 기독교가 이길 수 있는가? 많은 학자들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1 세기 세계선교의 가장 큰 과제는 모슬렘들을 어떻게 전도 하느냐 라는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교사역이 불법인 모슬렘 국가는 선교사 입국을 허용하지도 않으며 몰래 들어가 선교해도 들키면 사형에 처하던가 추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모슬렘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 및 공부하러 온 학생들을 비롯하여 무려 600 만이 넘는 모슬렘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미국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미국은 그러므로 세계 가장 요충적인 “세계 선교지” 입니다. 미국을 전도하면 세계를 전도하는 것이 됩니다. 미국의 대학을 뚫고 들어가 전도하여야 합니다. 거기는 세계를 지도할 인물을 양성하는 세계 각 나라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모슬렘을 전도하여야 합니다. 또 미국에 온 180 개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South Philadelphia 에 약 40,000 의 중국 화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매 여름마다 한국 2 세들이 가서 5 주간 교회를 빌려서 복음적인 Summer School 을 함으로 중국 화교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는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에서 온 아이들도 함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전도 됨으로 부모들까지도 전도가 되는 일이 일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을 Urban Mission 이라고 부릅니다.

또 West Philadelphia 에 임마누엘 교회 2 세 들이 University of Pennsylvania 대학가에 500 명이나 되는 다민족 교회를 세웠을 뿐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흑인 어린이들을 위하여 지난 십여 년 동안 Tutoring Project 를 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세계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조만간 에 그들이 세계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은 한국 백성을 30-40 년 전부터 미국땅에 강권적으로 보내어 4000 교회를 세우게 한 것입니다.

II.

바울은 처음에는 로마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였는지 전도의 열정을 아시아 쪽 과 비두니아 쪽으로 쏟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엄청나게 중요한 로마서를 쓴 것을 보면 선교적 차원에서 로마를 향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은 로마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 같습니다. 왜 원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바울의 마음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차라리 동쪽으로 가려고 무척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6-7 절에 이르기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할 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 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동쪽으로 갔더라면 한국이 로마 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선교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먼저 복음을 받고 구라파가 먼저 받고 한국은 그 후에 19 세기 말에 와서야 복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선교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으로 가려는 바울을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가는 길을 환상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8-10 에서 이르기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 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기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 이러라.” 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선교에 순서와 전략은 아시아가 먼저가 아니고 구라파 가 먼저였습니다.

이때부터 복음은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페뢰아로 아텐으로 고린도로 .. 서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가지고 서진하게 하신 목적이 로마를 먼저 복음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전략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게 되었고 로마서 로마서 16:22-24 에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성경기록에는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애썼으나 그 길이 막혔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라 옥중에서 있을 때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심문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심문을 받겠느냐 하는 질문에 바울은 답하기를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 (행 25:9-10)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선호 한 것은 로마에서 가이사의 집안에도 복음을 전함으로 로마에 전도의 문을 열고자 한 뜻이 내포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바울을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로 보냅니다.

하나님은 21 세기의 로마라고 볼 수 있는 미국에 한국 백성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좀더 잘살기 위하여 왔다고 하고 자녀교육을 위하여 왔다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21 세기 로마와 같은 미국에 180 개 다민족을 복음화하고 미국을 통하여 세계선교 하라고 한국 백성을 약 35 년 전에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III.

이제 문제는 이민 교회를 세운 한국 교회 1 세들이 어떻게 미국을 복음화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은 한국이 거대한 최강국 미국은 선교 한다고 생각하면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교는 문화권이 높은 부자 나라가 문화권이 낮은 가난한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라고 생각해 왔고 과연 지난 200 년간의 선교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인 선교는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식민지 약소 국가 유대나라 백성인 바울은 세계 최강국인 로마를 향하여 선교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로마와 같은 세계 최강국 미국을 선교하여 세계복음화에 쓰시려고 조그마한 나라 한국 백성을 미국에 보내셨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선교전략을 깨닫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1 세들이 어떻게 미국 대학의 Campus 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180 언어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언어의 장벽 때문에 불가능 한 것이 아닙니까? 선교란 원래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전도하는 것 입니다. 1 세 중에서도 유창한 영어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 되는 것은 미국에서 자라서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1.5 세와 2 세 들에게 미국 과 세계선교를 더욱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 35 년 동안 200 만 한국 이민을 미국에 보내시고 4000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1.5 세와 2 세들을 키워 미국을 선교함으로 세계선교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마치 1 세기 하나님이 바울을 강권적으로 세계선교를 위하여 로마로 보내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한국 백성을 미국에 보내어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서 2 세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1 세들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오직 미국에 있는 한국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여 한국교회를 세울 수 밖에 없었으나 1.5 세와 2 세들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영어는 세계 통상 언어입니다. 1 세기 헬라 말이 당시 세계 통상 언어 역할을 하였습니다. 미국 시민권은 1 세기 로마 시민 권과 흡사 합니다. 하나님이 1 세기 선교사로 크게 쓰셨던 바울, 바나바, 실라, 디모데 가 다 로마 시민권 자였고 헬라 말이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1 세기 선교에 크게 쓰셨습니다. 21 세기 하나님이 한국백성을 미국에 보내어 4000 교회를 세우게 하신 목적은 바로 영어에 능통하고 미국 시민권을 가진 2 세들을 키워서 미국과 세계 선교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2 세들은 나면서 미국 시민들입니다. 바울도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 하였습니다. 2 세들은 영어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헬라 말에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신약 서신을 다 헬라 말로 기록 했습니다. 2 세들은 유창한 영어로 미국 대학가 에서 미국 학생과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백인 흑인을 비롯한 180 언어 민족들의 2 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세계 어떤 국제 도시에 가도 영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영어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 세들이 전도 대상은 미국에 국한 되지 않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나 다 가서 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큰 도시에서 수 백명 수 천명 목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한국 2 세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Chae An, David Gibbons, Min Chung, Stephen Um 같은 목사도 있고 또 비록 좀 작으나 다민족 교회를 세워 충실하게 전도하고 있는 2 세 목사는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또 미국에 대학을 뚫고 들어가 대학생들을 향하여 다민족 교회를 세운 2 세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Min Chung 목사입니다. 그는 University of Illinois 가 있는 Urbana, IL 에서 다민족 교회를 세워 지금 1000 이 넘게 모이고 있으며 한국 2 세는 약 40% 이고 60% 가 다민족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Paul Chi 목사를 Wisconsin 대학이 있는 Madison, WI 에 파송하여 새로운 다민족 교회를 개척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Philadelphia 에 Paul Kim, Steve Kim, Young C. Kim, Robert Kim 등이 성공적인 학원 내지 시내 다민족교회를 세웠고, New York 에 Victor Kim, Brian Lee 등 Washington 에 John Cha, Atlanta 에 Matthew Ro, Chicago 에 Joshua Kang, Seesun Yoo, Peter Kim, Steve Kang, 또 남 가주에 Sam Park, Sam Yoo, Owen Lee, Iron Kim, Paul Kim, Harold Kim, James Han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많은 다민족 교회들을 2 세 목회자들을 통하여 지금 미국 큰 도시에 와 대학 Campus 에 세우고 있습니다. 추수 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군이 적습니다. 2 세들은 미국의 도시에서만 다민족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어느 국제 도시, London, Paris, Berlin 등을 비롯한 Tokyo, Hong Kong, Manila, Jakarta 같은 국제 도시에 얼마든지 가서 국제어가 된 영어로 목회하는 다민족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울을 비롯하여 세계 국제 도시에는 영어하는 젊은 이들이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이민교회의 생명은 2 세들을 키우는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미국에 갑자기 20 세기 말엽에 들어와 4000 한인 Diaspora 교회를 세우게 했는가? 그 이유는 곧 2 세들을 키워서 미국과 세계 선교를 하라고 미국에 한인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민 교회의 뜻을 상실한 교회가 됩니다. 미국 이민 교회의 지대한 선교적 사명은 모든 해외 선교를 앞서서 바로 2 세들을 키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선교적 사명은 2 세 선교입니다. 2 세가 죽으면 이민교회도 죽은 교회가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흥되고 엄청난 건축을 하고 또 지금 수많은 선교사를 돕고 있다고 할지라도 2 세를 키우지 못한 교회는 그 모든 것이 1 세에서 끝날 것입니다. 큰 교회 건물도 큰 선교도 다 1 세가 없어질 때 같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19 세기 영국은 선교 제 1 위 나라 이었지만 선교를 이어 받을 차세대를 키우지 못한 연고로 오늘날 선교는 약화되어 거의 없어질 정도가 되었고 교회당은 몰슬렘 사원으로 팔리고 있는 형편이 아닙니까? 2 세를 키우는 것은 이민교회의 제 1 의 선교적 사명입니다. 미국 이민 교회가 2 세를 얻었으면 다 얻은 것이고 2 세를 잃었으면 다 잃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이민교회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1 세 목회에만 급급하고 있거나 았나 생각됩니다. 이민 온 목적이 자녀들을 위하여 왔다면 이민교회의 목적도 자녀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뜻에 바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교는 1 세가 하기 보다 2 세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1 세의 일은 2 세를 키우는 일에 전무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세들을 폭 넓게 키워야 할 것입니다. 2 세들 가운데서 미국을 변화 시키는 목회자들이 나와야 하는 것은 물론 Billy Graham 과 같은 부흥사도 나와야 합니다. 미국의 주류 신학교에서 신학의 주류를 잡아가는 훌륭한 신학자 교수도 나와야 합니다. 이미 1 세 가운데서도 Fuller 신학교에서 교수 하시는 세계적 신약 신학자 김세운 박사 같은 분이 있으나 2 세들 가운데서 더 훌륭한 분들이 나와야 합니다. Hudson Taylor 나 William Carey 같은 훌륭한 선교사도 나와야 합니다. 선교는 반드시 전도로 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C.S. Lewis 같은 기독교 문학자도 나와 문화 선교도 하여야 합니다. 훌륭한 기독교 작가, 극작가, 음악가들이 나와 미국 아니 세계 문화를 기독교 화하는 문화 선교도 하여야 합니다. 또 Clinton 대통령 당시 국무차관으로 섬긴 Dr. Harold Koh 같은 분이 있었던 것과 같이 미국의 정치계 또는 법학계를 뚫고 들어가는 2 세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영향을 미국과 세계 온 분야에 다 발휘하는 인물들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미국에 있는 이민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말할 것 없이 2 세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교 사명입니다. 2 세는 그러면 어떻게 키웁니까?

1. 2 세는 바로 미국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2 세를 키우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와 주일 학교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자란 후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제일 강화되어 거기서 신앙이 굳어지고 선교적 사명과 2 세로서의 확실한 그리스도 안에 Identity 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일학교가 이어져 중 고등부와 대학 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부르시는 인물들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 들이 나오고 부르심을 받아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2007 년도 저는 필라델피아 에 있는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졸업식에 참여하였는데 한국 2 세 졸업생이 오직 두 사람밖에 없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깊이 연구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에 소망이 끊어 집니다.
2. 2 세 신 학생들이 끊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2 세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와도 갈 곳이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1 세 교회들이 2 세 전도사를 찾으면서 2 세 목회자를 키우는 대책과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1 세 목회자들은 2 세 영어권 전도사들을 써서 주일 학교, 중 고등부를 맡기는 데 급급하고 그 이상 더 키워주는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2 세 전도사 및 목사들과 같이 대화하고 그들의 생각을 들어주고 Mentor 해주고 Coaching 해주는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2 세가 인수 받고 개척교회를 할 때 또는 선교사로 나갈 때 1 세 교회가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주어야 합니다. 많은 미국 이민 교회가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는 이제는 미국에 있는 교회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한국에

교회들이 능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2 세들은 지금 1 세 교회에서 지원하여 주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많은 2 세 목회자가 선교사로 나가고 개척교회를 하는데 모금이 되지 않아 좌절하고 마는 경우도 많습니다.

4. 특히 2 세 목사가 나가 개척교회를 하면 곧 다민족교회가 됩니다. 제가 방문한 거의 모든 2 세 목회자들의 다민족교회는 그 구성이 한국 2 세 는 40% 미만으로 떨어지고 대부분이 다민족으로 형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미국을 떠나지 않은 세계선교 입니다. 그러나 개척하는 동안 약 3 년간을 재정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1 세 교회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것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2007 년 남 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이러한 2 세 다민족교회 개척자들을 위하여 매해 \$50,000 불의 예산을 세워 Multiethnic Church Planter 들에게 한 사람당 매 달 약 500 불 정도로 3 년간 도와 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이민 교회가 이런 본을 따라 조금이라도 2 세 목회자들이 다민족 교회를 개척할 때 재정으로 후원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기도 합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이민 교회의 사명이라면 우리는 겸손이 없드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부터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고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과 사명에 대하여 끊임 없이 기도하며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